



원자력, 이제는 국민 공감이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미국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석사
- 경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제25회 행정고시
- 지식경제부 원전사업기획단장
-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기획관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지식경제부 제2차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2013. 9.~)

어두운 골목길에 하나 둘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안심'의 웃음꽃이 핀다. 캄캄한 골목길을 걸으며 타인의 발소리를 위협적으로 느끼던 불안감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은 우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LED 안심 가로등'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서울 홍제동 일대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다. 올해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영덕 등 5~6개 지역에 태양광 안심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회사인 우리 회사가 이와 같은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함이다.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

원자력이 나아갈 바는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원전산업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 기술력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 의식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때만이 원전산업의 미래가 있다. 계속운전도 그렇고, 신규 원전 건설도 그렇다. 우리 원전산업이 에너지 안보의 기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

국민 공감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이다.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때만이 국민은 안심하실 것이다. 안전성은 원전산업의 기반이며 버팀목이다. 종사자 모두가 안전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위해 원전산업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실적은 매우 좋다. 한빛 3호기를 제외하고는 비계획 발전 정지가 없었다. 발전량과 이용률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것은 원전 종사자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자세로 안전하게 운영하여 국민에게 안심을 드려야 하겠다.

현안 사업 추진

두 번째 과제는 현안 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수많은 현안 사업이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신월성 2호기 준공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가운데 한 가지다. 지난 연말 불순한 세력의 사이버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통같은 보안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사이버 공격 안전지대로 만들 고자 한다.

건전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체계, SCM(Supply Chain Management)도 중요한 과제다. 이 시스템을 원자력 발전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인데, 공정하게 공급망을 관리하여 납품 비리

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원전산업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 더 큰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원전 사후 관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IAEA는 205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미 1개 호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약 6,000억원을 현금으로 적립해 놓았다. 2017년까지는 원전 해체 설계와 기술 확보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

세 번째 과제는 세계 원전산업계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주요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한·중·일 원전 운영사 간 공조 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세계 원자력계에서 책임 있는 주역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부터는 필자가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회장직을 맡아 협회를 이끌게 되며, 2017년에는 격년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다.

활발한 국민 소통

마지막으로 국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는 것이다.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정성을 쏟아야 한다. 과거 방폐장 부지 선정과 울진 대타협,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등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먼저 들어라'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원전산업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 기술력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 의식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때만이 원전산업의 미래가 있다

고 믿는다.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국민 각층을 만나 소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정성으로 국민 신뢰 회복

어쩌면 원자력의 특성상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올해의 경영화두로 '수적석천(水滴石穿)'을 제시한 바 있다. 물방울이 돌에 떨어져 마침내 구멍을 낸다는 뜻이다. 물방울이 무슨 큰 일을 이루겠냐고 하겠지만, 바위에 구멍을 뚫는 정성이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못 하는 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자력계의 현안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마음과 정성이 모여야 할 것이다.

국내 원자력계의 미래는 밝다. 얼마 전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사용후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전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데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고위급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산하에 실무그룹을 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제반 사안을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원자력 안전 연구 개발 협력과 사용후연료 관리 기술 교류가 활발해지는 길이 트인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원전 기자재와 원전 수출에도 힘이 될 것이다. 미국에 수출한 원자력 기자재와 이를 이용해 생산된 핵물질이 우리나라의 통제를 받게 된다니,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APR1400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세계 원자력 시장의 무대는 우리에게 열려 있다. 선진국의 어깨 너머로 원전 기술을 익혀온 우리는 기술력에서도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될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한 저력과 가능성을 더욱 갖고 닦아 거대한 무대로 당당하게 진출할 일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자력계 모두가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